

덕진공원, 녹색 둘레길로 새변신

전주시, 전북대 구정문~덕진연못 구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덕진공원에 장애물 없는 녹색 둘레길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에 이르는 대학 캠퍼스가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둘레길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올해 산림청 녹색자금 3억원 등 총 5억원을 들여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덕진연못 인근까지 500m 구간의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에 턱이 없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북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해당 토지사용을 영구 승낙하면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덕진공원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녹색 둘레길이 조성되면 교통약자의 덕진공원 이용이 편리해지고, 휠체어

를 타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지역은 노인(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등 소외계층 이용시설 9개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운행을 고려해 해당 구간에 자연친화적인 황토 포장이나 목재데크 등을 도입해 눈빛이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을 배려한 점자안내판과 난간손잡이, 유도 블럭 등의 편의시설 물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덕진 무장애 나눔길 이용자 스스로가 체력을 조절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일정구간마다 숲과 어우러진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나눔길 곳곳에 숲을 활용한 테

마를 이용한 문학 쉼터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대학교는 지난 2014년 전북대 신정문 인근에는 주민들을 위한 힐링 숲을 조성했으며, 지난 2015년 3월에는 '미래발전 공동구상'을 체결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나눔길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에는 전북대 신정문에서 구정문까지 500m 구간의 인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신 대학 내 산책로를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 활용하는 녹색에술거리 나눔숲으로 조성,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녹색 명품 산책로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는 또, 전북대 삼권 활성화를 위해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대학로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전주의 문

화적 특성을 살리고 젊은이들의 문화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시는 명품숲과 녹색에술거리 나눔숲에 이어 덕진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면, 전북대학교 신정문에서 덕진공원에 이르는 걷기 편한 새로운 생태축이 조성돼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산립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무장애 나눔길은 단순한 숲길이 아닌 학교 캠퍼스와 덕진공원을 이어주는 힐링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 둘레길이자,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길이"라며 "무장애 나눔길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슬로시티 전주 이미지를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복동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신청 접수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배·장판·내부 수리 등 추진

오랜 기간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 팔복동 노후주거지역 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신청을 최초로 접수한다.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팔복동 준공단지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A=48,000㎡)을 대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을 투입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

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지원대상은 팔복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도배, 장판 등 집 내부 수리다. 슬레이트지붕개량과 집수리는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 주택건축 20년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를 통해 집수리 지원 대상주택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공사의 지원 범위 및 공사비 적정성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팔복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간 팔복새뜰마을회관 마련,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및 공동체 지원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시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착수되면 산업단지 노후화로 침체일로에 있던 팔복동 노후주거지역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인 팔복새뜰마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희망자는 팔복새뜰마을회관(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150, 신화연립 1층)에 방문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재생과(063-281-2088)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점에서 현금 휴친 상근예비역 2명 검거

남원경찰서는 9일 음식점에서 현금을 휴친 상근예비역 군인 2명을 검거하고, 소속 군부대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소재의 예비군 면대에서 근무하던 김모(21)상병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휴가를 즐기던 중 술값과 인형뽑기 등으로 현금을 모두 사용하자 남원시 도동동 소재의 한 횡집에 침입해 주인 정모씨(54,여)의 가방에서 현금 17만원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아 음식점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수족관을 밟고 올라가 침입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었는데 현금이 모두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주시자봉센터,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자봉봉사센터가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영역을 인도네시아까지 넓혀나가고 있다.

전주시자봉봉사센터는 전북지역 대학생 해외봉사단원 등 자원봉사자 24명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14박 15일 동안 인도네시아 낙후지역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교육부와 월드프렌즈 코리아의 후원으로 선발된 호남특화지역 대학생 21명과 봉사단장(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인솔자 2명(전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4명이 2주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파퓏2번학교

에서 교육봉사와 노년봉사를 펼치게 된다.

봉사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서 한국문화·미술과학·보건위생·체육 등 4개 과목을 현지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로 평탄화 및 학교 페인트작업을 통해 현지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해줄 계획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운영

전주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들이 책과 함께 특별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완산·평화·삼천·효자 등 4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겨울방학특강은 △동화책속 요리 '핫도그' 만들기 △핸드폰 충전포켓 만들기, △소콜라티에 직업체험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평화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초콜릿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소콜라티에' 프로그램은 참석한 어린이들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뿐 아니라 진로 체험까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우리동네 좋은 간판 공모전' 출품작 전시

전주시가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간판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시청 로비에서 '우리동네 좋은간판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주의 광고문화 형성과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전주시 우리동네 좋은간판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 기존간판 분야 18점과 창작간판 분야 10점 등 총 28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위해 이틀간 시청로비에서 출품작을 전시,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간판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투표 결과는 심사접수에 포함되는 등 심

사에 적극 반영된다.

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간판과 전주시 광고물관리 위원회의 심사접수를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은 각종 시민 홍보·교육자료와 전시자료 등으로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과 간판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윤재신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전주시 우리동네 좋은 간판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공모전과 출품당선작의 전시를 통해 전주시 관내에 좋은 간판, 매력적인 간판, 아름다운 간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